

뮤지컬 번역에서 상호텍스트성에 대한 멀티모달적 고찰: <쌈썩로튼>을 중심으로*

홍 정 민
(동국대, 서울)

1. 서론

한국 뮤지컬 산업의 비약적 성장과 함께 국내 번역학 내에서도 관련 연구가 급증하고 있다. 200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뮤지컬 번역 논문은 석박사 학위 논문을 포함해 총 26편이며 특히 2020년 이후 2년 동안 진행된 연구가 9편으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은 양적 증가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 이처럼 양적 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가운데 최근에는 주제 및 방법을 보다 정교화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뮤지컬 번역 연구의 번역학 내 독립적 분과 학문으로서의 토대 마련에 중요한 공연예술 장르로서의 특성과 한국 산업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연구가 서서히 늘어나는 추세다(홍정민 2020 참고). 예를 들어, 다양한 언어와 비언어 기호가 개입되는 공연예술 장르로서의 특성을 반영해 멀티모달리티(multimodality)를 고찰한 연구가 최

* 이 연구는 동국대학교 2022학년도 동국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근 태동하고 있으며 주요 관객층, 배우의 영향력 등 한국 뮤지컬 산업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연구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이지민, 정지윤 2022; 홍승연 2022; 홍정민 2017, 2021).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을 모두 반영하기 위해 그동안 한국 뮤지컬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으나 최근 성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코미디 소재 작품 <썸씽로튼(*Something Rotten!*)>을 대상으로, 해당 작품의 핵심 특징인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이 번역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그 영향은 어떠한지를 다양한 언어 및 비언어 기호 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춰 멀티모달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 뮤지컬 산업에서는 특정 배우와 특정 관객층에 편중된 소비구조, 작품 포화 등이 시장의 추가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로 지적되면서 관객 및 작품 다변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박병성 2019. 1; 박선희 2018. 12. 18; 예술경영지원센터 2015; 양병훈 2017. 9. 8; 이재훈 2019. 1. 17). 편중된 소비구조와 관련해서는 배우와 관객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이미 여러 차례 이루어진 만큼(홍정민 2017, 2020, 2021, Hong 2020 등 참고) 작품 소재 다변화와 관련한 연구로 주제가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는 특히 코미디 작품에 주목하고자 한다. 한국 뮤지컬 산업에서는 추리물, 스릴러 등의 범죄나 비극적 소재가 특히 선호되고 있으나 <젠틀맨스 가이드: 사랑과 살인편(*A Gentleman's Guide to Love and Murder*)>, <썸씽로튼(*Something Rotten!*)> 등의 코미디 작품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각각 세 차례 공연되며 드문 흥행을 기록함으로써 해당 소재의 성공 가능성과 이를 통한 흥행작 다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박정선 2022. 2. 6; 조유경 2019. 1. 28). 특히 <썸씽로튼>의 경우 번역에서 큰 호평을 받은 만큼(박민지 2020. 9. 21; 이슬기 2021. 11. 4; 이재훈 2020. 8. 12; 천상욱 2020. 8. 23) 해당 작품의 번역 양상과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한국 뮤지컬 산업만의 특수성을 정교하게 반영하는 동시에 시장의 추가 성장 견인 잠재력을 지닌 코미디 작품의 성공적 번역에 대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뮤지컬 연구의 질적 성장뿐 아니라 산업적 발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뮤지컬 번역에서 상호텍스트성

2.1.1 상호텍스트성의 정의와 특징

상호텍스트성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고안한 프랑스의 문학 비평가 줄리아 크리스테바(Kristeva 1980: 15)는 상호텍스트성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호 체계가 다른 기호 체계로 전위(transposition)되는 것으로 정의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의 텍스트가 모방, 표절, 패러디, 인용, 반박, 변형 등의 형태로 관련된 부호와 관습 체계 안에 위치하는 것(Hatim and Mason 1990: 125)을 의미한다.

상호텍스트성은 하나의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의 영향 관계에서 이루어졌다는 개념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향 관계는 직접적인 인용이나 언급에 의해 이뤄질 수도 있고 간접적인 언급이나 암시 관계에 의해 이뤄질 수도 있으며 같은 주제를 다루게 됨으로써 생겨날 수도 있다(김도남 2014: 87). 상호텍스트성은 수직적(vertical), 수평적(horizontal)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저자(writing subject)와 독자(addressee) 사이에 이뤄지는 관계를, 후자는 외부 텍스트(exterior texts), 즉 하나의 텍스트와 그 이전 또는 동시대의 텍스트 간 관계를 지칭한다(Kristeva 1980: 66). 수평적 상호텍스트성에서 텍스트 간 관계의 경우 하나의 텍스트와 다른 텍스트 사이에도 존재하지만 하나의 텍스트 안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하티무와 메이슨(Hatim and Mason 1990: 124)은 상호텍스트성의 개념을 좀 더 세분화하면서 텍스트 자체를 넘어 지식과 신념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능동적(active) 상호텍스트성이라고 지칭하고, 내적 응집성(이해가능성)이라는 기본 요건 정도만 갖춘 것을 수동적(passive) 상호텍스트성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동적인 상호텍스트 관계에 있는 기호 체계 사이에는 의미의 연속성이 존재하는데, 번역가가 이를 인식할 경우 목표 텍스트(TT, target text)에서도 가능한 한 유사한 연결망이 반영되도록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수동적 상호텍스트성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124).

상호텍스트성의 관점은 텍스트의 의미에서 수용자의 역할을 특히 강조한다. 수용자는 텍스트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텍스트들과의 연결을 통해 새로

운 텍스트를 구성하므로 이미 내재된 결정적 의미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소비자가 아니라 텍스트를 함께 생성해내는 생산자이기 때문이다(김도남 2014: 117; 나선희 2009: 15).

이러한 관점에 기반할 때 상호텍스트성은 번역에서는 좀 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 ST 독자와 사회적 경험이 상이하거나 문화권이 다른 TT 독자들은 동일한 텍스트에서도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미정 2006: 63). 따라서 번역에서는 ST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성의 효과를 보존하기 위해 TT 문화권의 기존 번역물, 사전적 의미, 수용자의 용어 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통해 ST 독자와 TT 독자 간 문화적 차이가 좁혀지거나 새로운 장이 열리기도 한다(오정민, 김순영 2019: 104).

2.1.2 뮤지컬에서 상호텍스트성 분석의 필요성

상호텍스트성에 대한 논의가 문학 이론에서 출발한 만큼 관련 연구도 주로 소설, 시 등 언어 기호를 매개로 하는 활자 텍스트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김일경 2018: 12). 번역학 내 관련 연구 역시 주로 언어적 측면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이현경(2014)과 문택혜(2022)는 각각 아동문학과 뉴스 텍스트를 중심으로 상호텍스트성의 지표인 인용과 패러디 번역을 연구했고 오정민과 김순영(2019)은 슈퍼히어로 장르 영화 자막번역에 나타난 상호텍스트성을 고찰했으나 분석 대상이 모두 언어 기호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상호텍스트성은 언어뿐 아니라 다양한 비언어 기호, 그리고 이들 간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데도 유용하며 실제로 그 개념의 확장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논의도 확산되고 있다. 나선희(2009: 13)는 상호텍스트성이 문학 이론에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친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고 이상복(2004: 100) 역시 상호텍스트성에서 텍스트의 의미는 단순한 문학 작품의 영역이 아니라 담화나 기술 행위로 나타나는 인간의 다양한 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러한 관점에 기반하여 상호텍스트성 연구의 범위가 조각, 건축, 공연예술 의상, 무용에 나타나는 상호텍스트성 등으로 좀 더 확장되고 있지만, 주로 개별 비언어 기호의 상호텍스트성에 대한 분석에 그치고 있다(고경호, 김용성 2008; 양용 2010; 첸양 2018 등 참고).

번역학 내에서는 박미정(2006, 2008)이 시사만화 그림 번역의 상호텍스트성

분석을 통해 그림이라는 시각 기호와 언어 기호 간 상호작용을 논의하면서 비언어 기호를 통해 나타나는 상호텍스트성 분석의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상호텍스트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분석의 초점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책 표지(선영화 2017; 최희경 2011), 인쇄 광고(이상빈 2015a, 2017), 영화 포스터(신나안 2018; 신나안, 신진원 2017; 이상빈 2015b; 이주리에 2014), 애니메이션(선영화 2016), 영화(윤미선 2022) 등 다양한 멀티모달텍스트에서 나타나는 기호 간 상호작용과 이를 통해 관객들에게 전달되는 의미를 고찰한 연구도 다수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들 연구의 분석 초점이 모두 시각 기호와 언어 기호에 맞춰져 있다는 점은 추가 연구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는 언어 기호와 시각, 청각 등 좀 더 다양한 비언어 기호 간 상호작용을 핵심적 특징으로 하는 뮤지컬 장르의 상호텍스트성을 분석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범위를 좀 더 다양한 기호와 이들 간 상호작용으로, 즉 보다 멀티모달적으로 확장하고자 한다. 특히 뮤지컬에서 관객이 행사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감안하면 수용자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상호텍스트적 관점은 매우 효과적인 분석 도구가 될 수 있다. 뮤지컬에서 관객은 작품의 총체적 의미 형성부터 상업적 흥행에 이르는 다양한 측면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이들의 기대와 수요는 전반적 제작 방향에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작용한다. 또, 뮤지컬은 공연예술로서 한 번 지나가면 다시 볼 수 없는 일시성을 주된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ST 속 상호텍스트성이 다른 장르에 비해 좀 더 명시적, 직관적으로 TT 관객들에게 전달되어야 그 효과가 유지될 수 있다. 여기에,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쌈뽕로튼>은 상호텍스트성을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하는 작품으로 뮤지컬 번역에서 상호텍스트성의 처리를 고찰하는 데 특히 적합한 분석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3.1절 참고).

2.2 뮤지컬 번역에 대한 멀티모달적 접근

본 연구는 뮤지컬에서 나타나는 상호텍스트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언어 및 비언어 기호를 멀티모달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뮤지컬은 음악, 노래, 무용 등이 결합된 종합 무대예술 장르인 만큼 가사와 대사 번역 과정 및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다양하다(예술경영지원센터 2019). 우선, 여타 공연에

술과 가장 차별되는 ‘노래’라는 특징이 있으므로 번역 시에는 음악과의 의미적, 음운적 조화를 고려해야 하며 동작(제스처, 움직임), 무대, 소품, 조명, 의상 등 그 밖의 다양한 비언어 기호도 점검되어야 한다(홍정민 2021: 316). 특히 이러한 기호들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서로 보완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며 개별적,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 총체적으로 의미를 생성하기 때문에 (Esslin 1987: 106; Kowzan] 1968: 56-58) 뮤지컬의 장르적 특성을 정확하고 정교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호 간 상호작용을 총체적으로 고찰하는 멀티모달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단어라도 억양, 리듬, 속도, 표정, 동작, 소품, 의상 등에 따라 다른 의미가 전달되거나 특정 의미가 강화 또는 약화할 수 있고 단어, 동작, 소품, 의상 등은 서로를 대체할 수도 있다(Kowzan 1968: 63-64).

이러한 멀티모달적 접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그 동안 가사와 음악 간 상호작용 분석에 주로 초점을 맞추던 국내의 뮤지컬 번역 연구에서도 다양한 기호 요소 간 상호작용에 대한 멀티모달적 접근이 확산되고 있다(이지민, 정지윤 2022; 홍승연 2022; Hong 2020, 홍정민 2021; Carpi 2020 등 참고).

홍(Hong 2020)은 한국 뮤지컬 산업의 대표 흥행작인 <지킬앤하이드(*Jekyll & Hyde*)>와 <쓰릴미(*Thrill me*)>의 금기어 번역 양상을 가사와 대사 등의 언어 기호와 음악, 동작, 소품, 의상 등 다양한 비언어 기호 간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고찰했고 홍정민(2021)의 경우 패밀리 뮤지컬 <마틸다(*Matilda the Musical*)>의 아동 관객 대상 가사 번역 양상을 역시 음악, 소품, 동작 등의 비언어 요소와의 관련성에 기반해 분석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는 분석 틀이 정교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어 분석 틀 보완을 통해 연구 방법의 타당성과 결과의 설득력을 보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홍승연(2022)의 경우 라이선스 뮤지컬 번역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언을 위해 뮤지컬을 음악, 가사, 대사, 안무, 무대장치 등이 통합된 하나의 멀티모달 텍스트로 보고 분석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각 언어 및 비언어 기호를 ‘모드(mode)’로, 이들 간 상호작용을 ‘모드 앙상블(mode ensemble)’로 지칭하고 가사 모드, 가사와 음악 및 사운드 모드 간 앙상블, 가사 모드와 안무 모드 앙상블, 세 개 이상의 핵심 모드 앙상블을 고찰함으로써 다양한 기호 간 상호작용을 통합적이고 다각적으로 점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각 모드 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영화 등 영상 번역에서 제시된 분석 틀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공연예술로서의 장르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측면이 한계로 보인다.

이지민과 정지윤(2022)은 뮤지컬 <레미제라블(*Les Misérables*)> 속 ‘내일로(One Day More)’의 한국어 번역 양상을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 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바 있다. 특히 뮤지컬 및 연극 선행 연구를 종합해 뮤지컬에서 사용되는 청각, 시각 등의 비언어적 요소의 유형을 감각과 구현 방법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함으로써 장르적 특성을 반영하고자 했고 이를 통해 뮤지컬에 대한 멀티모달적 분석의 기반을 좀 더 정교하게 마련했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다만, 여기서도 각 비언어 요소 사이에 중복이 존재하는 만큼 좀 더 명확하고 통일된 분류 기준 마련을 위해서는 추가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이 연구는 뮤지컬의 비언어적 요소를 청각과 시각으로 구분하고 청각에는 음악, 음향 효과를 포함했으며, 시각은 무대와 배우로 구분한 뒤 무대는 무대 장치, 조명, 도구로, 배우는 배치, 동선, 연기(춤, 몸짓, 표정), 외양(신체적 외모, 분장, 헤어스타일, 의상, 소품)로 분류했다. 하지만 무대의 도구와 배우의 소품, 배우의 동선과 몸짓 간에는 개념이 중복되는 만큼 실제 분석에서 이를 분리해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유용한지에 대해서는 지속적 확인이 필요하다.

해외에서도 멀티모달적 접근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카르피(Carpi 2020)는 그 동안 공연예술 장르에서의 노래 번역에 대한 소수의 연구가 가사에만 치중하고 뮤지컬 장르의 핵심인 다양한 기호 모드 간 상호작용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언어, 청각, 시각 모드 모두를 아우르는 멀티모달적 분석 모델을 제시했다(Carpi 2020: 421-423). 카르피(2020: 435)는 특히 각 기호 간 상호작용의 효과를 첨가(addition: 기호 모드 가운데 하나에 의해 노래에 새로운 테마가 첨가된 경우), 강화(enhancement: 청각 및 시각 모드로 인해 언어 모드를 통해 표현된 테마가 정교해지고 해석이 강화된 경우), 수정(modification: 청각 및 시각 모드로 인해 기존 테마에 관련 해석이 첨가된 경우)으로 분류함으로써 각 기호 요소의 유형과 특징뿐 아니라 이들 간 상호작용의 효과에 대해서도 정교한 분석 틀을 마련했다. 하지만 ‘강화’와 ‘수정’의 개념 및 술어 간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이러한 술어가 기호의 처리 방법에 대한 것인지, 기호의 처리가 테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것인지가 모호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분류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 언어 기호를 중심에 놓고 그 밖의 기호에는 보조적인 역할을 부여했는데(430) 이는 다양한 모드 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멀티모달적 접근으로서 한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본 연구는 그 동안 뮤지컬 번역 연구에서 논의되지 않았지만 뮤지컬의 장르적, 산업적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상호텍스트성, 코미디 소재 작품 등의 주제를 멀티모달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뮤지컬 번역 연구의 주제 확대와 정교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또, 공연이 지속되고 있는 무대 안에서 의미 형성에 영향을 주는 비언어 기호와 함께 무대 밖에서 관객의 관극 경험에 영향을 주는 ‘프레이밍 장치(framing devices)’(Esplin 1987: 53-55)도 분석 대상에 포함하고자 한다. 프레이밍 장치란 극장의 분위기, 제목, 작품에 대한 설명, 사전 홍보, 리뷰, 프로그램 북 등 관객이 공연 관람에 앞서 접하게 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일컫는 말로, 관객의 기대와 작품 전체에 대한 이해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Esplin 1987: 54-55) 장르적 특성을 좀 더 정교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 연구 방법

3.1 분석 대상 작품 및 넘버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작품인 <쌌쌌로튼>은 2015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되었다. 한국에서는 2019년 브로드웨이 오리지널 프로덕션의 내한 공연을 통해 소개된 후 2020년 8월~10월까지 라이선스 초연이, 2021년 12월~2022년 4월까지 라이선스 재연이 공연된 바 있다. 초연은 코로나 사태로 조기 폐막되었지만 제5회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최다 부문 후보에 올랐다(허백운 2020. 12. 21). 재연의 경우 공연 기간(2021년 12월 23일~2022년 4월 10일) 중 월간 단위를 기준으로 1월~3월에 각각 8위, 12위, 6위 등 10위권 안팎의 양호한 성적을 거뒀으며 코미디로서는 흥행에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인터파크 티켓 예매 사이

트). 특히 스타 영화 번역가인 황석희 번역가가 내한 공연부터 맡아온 번역은 잇따른 호평을 받았는데, 원작의 맥락과 한국적 정서 간 균형을 적절히 맞춘 현지화를 통해 셰익스피어와 뮤지컬에 익숙한 관객은 물론, 그렇지 않은 관객도 작품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도왔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는 점은 ST의 상호텍스트성이 TT 관객들에게도 적절히 전달되었음을 시사한다(박민지 2020. 9. 21; 이슬기 2021. 11. 4; 이재훈 2020. 8. 12; 천상욱 2020. 8. 23).

이 작품은 1595년 극작가이자 극단 운영자인 닉과 나이젤 바텀 형제가 당대 최고의 스타 작가 셰익스피어에 맞설 역작 집필에 고심하던 중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듣고 인류 최초의 뮤지컬을 제작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으로, 셰익스피어를 비롯해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 대사, 에피소드를 다양하게 변주하고 차용하며 여러 뮤지컬과 문학 작품을 패러디하거나 인용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재미를 선사한다(<쌈썩로튼> 2차 프로그램북; 양진영 2020. 8. 17). 예를 들어, 작품의 제목인 <쌈썩로튼>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대사이며 주인공인 ‘닉 바텀’은 셰익스피어 희곡 <한여름 밤의 꿈>의 극중극 <피라무스와 티스베>에서 피라무스역을 맡은 닉 바텀에서, ‘포샤’, ‘샤일록’ 등 그 밖의 주요 등장인물 역시 셰익스피어 희곡 <베니스의 상인>의 동명 캐릭터에서 따온 것이다(<쌈썩로튼> 1차 프로그램북). 특히, ST에 패러디 또는 인용된 뮤지컬 작품 가운데 다수는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것으로 번역 과정에서 ST와 TT 관객 간 상호텍스트적 지식이 불가피하게 조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작품에 등장하는 총 22개의 넘버 가운데 노스트라다무스가 닉에게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설명하면서 부르는 ‘뮤지컬(A Musical)’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넘버는 작품의 대표 넘버로서 <레미제라블>,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Jesus Christ Superstar)>, <렌트(Rent)>, <캣츠(Cats)> 등 총 27개에 달하는 유명 뮤지컬 작품 또는 그 넘버가 패러디되거나 인용되어 있다(Shapiro 2015. 6. 3). 즉, 관객이 해당 넘버를 정확히 이해하고 충분히 즐기기 위해서는 패러디되거나 인용된 대상에 대한 상호텍스트적 지식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국내에 내한 또는 라이선스로 소개된 작품은 12개에 그쳐 번역에서 ST와 TT 관객 사이의 상호텍스트적 지식 간극을 조정할 필요가 큰 넘버이므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대상으로 판단

된다.

3.2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다양한 언어 및 비언어 요소와 이들 간 상호작용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유튜브 영상을 주로 참고했다. ST는 <썸씽로튼> 브로드웨이 오리 지널 프로덕션의 공식 계정에 업로드된 영상(2017년 2월 24일 업로드)을, TT는 2022년 한국 재연 공식 프레스콜 영상(2022년 1월 5일 업로드)을 연구자가 전 사하는 방식으로 수집했다. ST는 공식 계정에 업로드된 것이며 패러디되거나 인용된 작품에 대한 정보가 영상의 자막을 통해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TT의 경우 국내에서 공연된 가장 최근 프로덕션의 번역으로 내 한 공연 자막을 포함해 세 번째 이루어진 만큼 관객들의 기대와 수요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분석 자료로 선택했다.

또, 수집된 ST와 TT를 기타 자료를 통해 다각적으로 보완하는 작업도 거쳤다. ST는 브로드웨이 공식 OST에서도 정확한 가사에 대한 정보를 참고했고, ST와 TT에 패러디되거나 인용된 작품에 대한 정보는 프로그램 북, 언론 기사, 평론가 리뷰 등을 통해 다층적으로 확인 및 파악함으로써 좀 더 정확하고 정교한 분석 결과를 도출하고자 했다.

3.3 분석 틀

본 연구는 분석 대상 넘버에서 ST의 상호텍스트적 지시가 어떻게 번역되었으며 이는 TT의 상호텍스트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선행연구를 참고하고 수정해 분석 틀을 마련했다.

번역 양상에 대해서는 번역학 내에서 멀티모달적 관점의 상호텍스트성 분석에 대한 기반을 마련한 하딕과 메이슨(1990: 120-137)을 참고했다. 이들은 기호학적 관점에서 상호텍스트적 지시(intertextual reference)의 번역 방법(procedures)를 우선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방법 1: 기호학적 지위 유지(Retain semiotic status)

방법 2: 의도 유지(Retain intentionality)

방법 3: 응집성을 위해 언어적 장치 유지(Retain linguistic devices which uphold coherence)

방법 4: 가능한 경우, 정보의 의미 유지(Retain, if possible, the informational status)

방법 5: 가능한 경우, 언어외적인 위상 유지(Retain, if possible, the extra-linguistic status)

이들은 각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광고에 등장하는 ‘하인즈 케첩’의 종류 수에 기반한 상호텍스트적 지시로서 ‘종류’, ‘무작위성’, ‘임기응변적 결정’을 내포하는 ‘57’이라는 숫자를 예시로 사용했다. 방법 1은 그러한 내포적 의미를 지닌 기호를 유지하는 것, 방법 2는 상호텍스트적 지시의 임기응변적 성격을 풍자하는 행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방법 3은 동일한 텍스트에 먼저 등장했던 57이라는 숫자를 다시 반복하는 것으로 앞서 설명한 수동적 상호텍스트성 보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 방법 4는 57이라는 숫자의 산술적 지위를, 방법 5는 ‘광고’ 장르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이들은 모든 상호텍스트적 지시를 번역할 때 기본이 되는 것은 방법 1~3이라고 강조했다(Hatim and Mason 1990: 136).

본 연구 역시 이러한 관점에 기반해 분석 대상 넘버에서 ST의 상호텍스트적 지시의 처리를 위해 방법 1~3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이는 TT의 상호텍스트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다만, 이들 방법이 언어 텍스트를 대상으로 제시된 것이므로 뮤지컬이라는 장르와 분석 대상 넘버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법 1은 사용된 작품과 넘버가 ST 문화에서 내포하는 의미, 즉 널리 알려진 것으로 대사, 가사, 음악, 동작, 소품만 보더라도 관객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의미를 보존하는 것으로, 방법 2는 관객들의 관심과 흥미 유발이라는 대중예술 장르로서의 의도를 보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방법 3의 경우, 뮤지컬에서는 언어뿐 아니라 비언어 기호가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상호작용하므로 기호 장치의 유지로 관점을 확대해 적용한다.

또, 상호텍스트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카르피(2020)의 분석 틀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해 적용하고자 한다. 즉, 해당 연구에서 제시된 테마를

상호텍스트성에 국한하고, 언어와 비언어 기호 간 상호작용에 선후 관계나 위계를 두지 않고 카르피가 제시한 것과 반대의 영향 관계, 즉 언어 기호가 청각 및 시각 기호를 강화하거나 청각 및 시각 기호를 통해 전달되는 테마에 관련 해석을 첨가하는 경우 등도 분석 범위에 포함하여 좀 더 멀티모달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아울러,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념과 술어의 모호성을 보완하고 기호의 번역 방법이 아니라 번역이 상호텍스트성에 미치는 효과에 좀 더 초점을 두기 위해 ‘첨가’와 ‘강화’는 ST에 부재하던 지시가 새로 첨가되거나 존재 하던 지시가 좀 더 명확해짐으로써 상호텍스트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상호텍스트성의 강화’로, 수정은 관련 해석을 첨가한다는 카르피의 설명이 강화나 첨가에 대한 정의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번역 과정에서 손실된 ST의 상호텍스트성을 다른 지시로 대체해 TT에서 상호텍스트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고 ‘상호텍스트성의 보상’으로 분류해 분석을 진행했다.¹⁾

4. 분석 결과

분석 결과, ST의 상호텍스트적 지시, 즉 패러디되거나 인용된 작품 또는 넘버가 TT 독자들에게 생소한 경우 번역자는 방법 1~3을 통해 TT의 상호텍스트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ST의 상호텍스트적 지시를 다른 지시로 대체해 상호텍스트성을 보상하거나 ST에 없던 지시를 새로 첨가함으로써 상호텍스트성을 보다 강화한 경우가 자주 발견되었다. 예시에서 패러디되거나 인용된 작품과 관련 기호는 중괄호로 제시했고 각 작품의 제목과 넘버는 오리지널 프로덕션일 경우 영어로, 라이선스 프로덕션일 경우에는 한국어로 표기했다.

1) ST와 TT 독자 모두에 매우 익숙한 작품과 넘버(예. <Cats>, <Annie>, <A Chorus Line>, <Chicago>)를 변형하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경우도 상호텍스트성 확보에 기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번역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보상과 강화 사례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 및 분류했다.

4.1 상호텍스트성 보상

<예시 1>은 TT 관객 사이에 상호텍스트적 지식이 부재한 ST를 좀 더 친숙한 작품의 가사, 음악, 동작, 소품으로 대체해 기호학적 지위를 유지하고 텍스트의 의도를 보존함으로써 상호텍스트성을 보상한 사례다. 분석 대상 넘버의 가사는 뮤지컬의 특징을 음악 및 노래 → 춤 및 동작 → 배우 → 내용 및 분위기 → 관객들의 반응의 순서로 나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춤 및 동작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 친 바와 같이 ST에서는 ‘Fascinating Rhythm’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사용되었으나 TT는 이를 <싱잉 인 더 레인>의 가사, 음악, 동작, 소품으로 대체했다(<썸씽로튼> 2차 프로그램북; 이수진 2019. 6. 26). ‘Fascinating Rhythm’은 뮤지컬, 클래식, 재즈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한 미국의 대표 작곡가 조지 거쉰(George Gershwin)의 노래인데, ST가 이를 선택한 것은 해당 부분의 내용이 춤 및 동작에 대한 것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해당 노래가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TT의 상호텍스트성은 손실될 수 있다. 이에 번역자는 ST의 기호학적 지위를 유지하고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TT 관객들에게 매우 익숙한 작품, 특히 이 가운데 우산을 쓰며 거리를 걷는 소품과 동작으로 유명한 <싱잉 인 더 레인>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이러한 변화에 맞춰 언어 기호 역시 “Um, what is that?”에서 “비 맞으면서 발로 이 짓을 한다구요?”로 수정함으로써 수동적 응집성도 강화했다. 방법 1~3이 동시에 충실히 진행된 경우로 볼 수 있다.

<예시 1>

ST	TT
Nostradamus Another vision! I haven't even told you the best part yet! <u>Feel that fascinating rhythm moving to your feet</u> [<u>'Fascinating Rhythm'의 가사</u>] Whoa, whoa	노스트라다무스 뭔가 또 다른 게 보인다 하이라이트는 따로 있었어 경쾌한 리듬에 아임 싱잉 인 더 레인 [<u><싱잉 인 더 레인>의 가사, 음악, 동작, 소품</u>]
Nick Um, what is that?	닉 비 맞으면서 발로 이 짓을 한다구요?

Nostradamus Feel your ass gyrating to that titillating beat	노스트라다무스 신나는 비트에 엉덩이를 돌려봐 오오호호
Nick Are you okay?	닉 어..잠깐만 괜찮은 거 맞죠?
Nostradamus You slap your lap And finger snap That's when you know it's time to tap Oh	노스트라다무스 무릎을 쳐 그리고 핑거 스냅 그때부터 탭 댄스 타임 후

<예시 2>는 ST에 사용된 작품의 기호적 지위나 의도를 충분히 보존하지는 못했지만 ST에는 없던 내적 응집성을 강화해 TT의 수동적 상호텍스트성은 확보한 경우다. 예시에서 볼 수 있듯 ST에 사용된 <Evita>의 가사, 음악, 동작 가운데 음악은 유지된 반면 일부 가사는 “뮤지컬 나가신다”로 변경됐고, 동작 역시 이에 맞춰 뺀은 팔을 앞뒤로 번갈아 흔드는 <캣츠>의 동작으로 수정됐다(<썸씽로튼> 2차 프로그램북)(<그림 1> 참고). 이러한 시도는 <Evita>가 브로드웨이의 대표 흥행작이지만 한국에서는 2006년과 2011년 두 차례 라이선스로 공연됐음에도 원작만큼 유명해지거나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과 마지막 공연 이후 11년이 지났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해당 음악을 유지하더라도 기호적인 지위와 텍스트의 의도가 온전히 보존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캣츠>의 동작을 선택한 데에는 작품에 대한 TT 관객들의 친숙함뿐 아니라 해당 동작이 넘버의 뒷부분에 두 차례 더 등장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호를 반복하는 것이 TT의 내적 응집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도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2) <오페라의 유령(The Phantom of the Opera)>, <캣츠>,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등과 함께 런던 웨스트엔드 뮤지컬의 거장 앤드류 로이드 웨버(Andrew Lloyd Webber)의 대표작으로 꼽히며 토니상 7개 부문을 수상하고 마돈나 주연의 영화로도 제작될 만큼 작품성과 상업성 측면에서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이다(김호경 2018. 4. 1; 안시은 2012. 1. 21).

<예시 2>

ST	TT
Nostradamus <u>Stand back</u> [<u><Evita>의 가사, 음악, 동작</u>] <u>It's a musical!</u>	노스트라다무스 <u>모두 비켜</u> [<u><에비타>의 음악, 가사</u>] <u>뮤지컬 나가신다</u> [<u><캣츠>의 동작</u>]

<그림 1> 응집성 제고를 위한 동작 대체 - 1



<예시 3> 역시 ST에서 사용된 다양한 기호를 관객에게 좀 더 친숙한 대체 하여 기호학적 지위를 유지하고 텍스트의 의도를 보존함으로써 상호텍스트성을 보상한 사례다. 또, ST에서 언어 기호를 통해 구축된 ‘여성 대 남성’이라는 의미적 연결망을 작품 전체 또는 해당 넘버의 앞부분에 등장한 여러 기호 장치의 반복을 통해 또 다른 의미적 연결망으로 대체함으로써 내적 응집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도 발견되었다. 이 역시 방법 1~3이 동시에 진행된 사례로 볼 수 있다.

우선, 국내에 생소한 <Seussical>이라는 작품의 제목은 국내 대표 라이선스 흥행작 <맘마미아>³⁾의 음악으로 대체되면서 익숙한 작품으로서의 기호학적 지위가 유지되고 관심과 흥미 유발이라는 의도도 보존되었다. 해당 부분의 가사 역시 이처럼 바뀐 음악에 맞춰 “뮤지컬에선 여자도 주인공 될 수 있어”로 변경되었으며 이 가사와의 의미적 연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에 나오는 가사

3) <맘마미아>는 지난 2004년 한국 라이선스 초연 이후 2019년까지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한국 뮤지컬 사상 두 번째로 최단기간, 최다 관객을 모은 작품이다(양진영 2019. 8. 17).

“And the women are risqué”도 “위풍당당 여자들”로 변경됐다. 이러한 TT는 여성의 존재를 ST보다 부각시키는데, 이는 작품의 주요 여성 인물인 ‘비아’와 ‘포샤’의 친취적이고 적극적인 캐릭터와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 해군 모자를 쓰고 굽힌 양팔을 좌우로 흔드는 <South Pacific>⁴⁾ 속 ‘There’s nothin’ like a Dame’의 소품, 동작 중 일부는 바뀐 가사의 의미에 맞춰 굽힌 양팔을 하나씩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으로 대체됐다(이수진 2019. 6. 26)(<그림 2> 참고). 여기서 <South Pacific> 동작이 내포하는 기호학적 지위는 온전히 유지되지 못했지만 가사, 동작 등 다양한 기호를 통해 발생하는 의미가 서로 연결됨으로써 작품 전체의 내적 응집성이 높아지고 수동적 상호텍스트성은 확보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예시 3>

ST	TT
<p>Nostradamus It’s a musical Whaddya talk, whaddya talk [<i>The Music Man</i>의 가사, 음악]</p> <p>It’s a musical! A Seussical? [<i>Seussical</i>의 제목]</p> <p>No, a musical with girls on stage</p> <p>Ensemble A musical</p> <p>Nostradamus We’ve got snappy repartees [<i>South Pacific</i>의 동작, 소품]</p> <p>And the women are risqué And the chorus boys are kind of gay</p>	<p>노스트라다무스 이게 확실한 미래야 뮤지컬이야. 뭐라고 뭐라고</p> <p>뮤지컬에선 여자도 주인공 될 수 있어 [<i>맘마미아</i>의 가사, 음악]</p> <p>앙상블 어 뮤지컬</p> <p>노스트라다무스 정신 없이 빠른 대화</p> <p>위풍 당당 여자들 사뿐 사뿐 남자 코러스</p>

4) <사운드 오브 뮤직(*Sound of Music*)>의 작곡가로 유명한 리처드 로저스(Richard Charles Rodgers)가 오스카 해머슈타인 2세(Oscar Greeley Clendenning Hammerstein II)와 함께 49년 무대에 올린 작품으로 풀리처상을 수상했으며 58년에는 영화로도 제작되어 엄청난 흥행을 기록했다(중앙선데이 2011. 11. 6).

〈그림 2〉 응집성 제고를 위한 동작 대체 - 2



4.2 상호텍스트성 강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ST에는 없지만 TT 문화에서 기호학적 지위를 지니는 상호텍스트적 지시를 새로 첨가해 ST보다 상호텍스트성을 강화한 사례도 발견됐다. 아래 <예시 4>는 해당 넘버의 마지막 마디로 TT는 넘버가 끝나는 부분에 후렴을 한 번 반복하고 밑줄 친 부분과 같이 <라이언 킹>의 ‘The Circle of Life’에서 국내에서 유사한 발음의 단어로 자주 패러디되는 노래(가사와 음악)와 텀블링 동작을 추가했다. 해당 작품과 넘버가 디즈니의 영화로도, 2019년과 2022년 오리지널 프로덕션의 내한 공연을 통해서도 한국 독자들에게 친숙하다는 점을 감안한 선택으로 판단된다.

<예시 4>

ST	TT
Nostradamus & Nick Your star lit Won't quit Big hit Musical	노스트라다무스와 너 영원히 빛날 빅 히트 뮤지컬

<p>All A big hit musical</p>	<p>모두 어 빅 히트 뮤지컬</p> <p>넉 사람들이 이걸 정말 좋아한다고요? <u>노스트라다무스</u> 어쩔 땐 너무 좋아해서 후렴을 또 불러 가자! 5, 6, 7, 8</p> <p>모두 <u>날 믿어봐</u> <u>오, 이걸 대박이야</u> <u>영원히</u> <u>빛날</u> <u>빅 히트</u> <u>뮤지컬</u></p> <p>노스트라다무스 <u>마즈벤야~ [〈라이언 킹〉의 가사, 음악, 동작]</u></p>
----------------------------------	---

<예시 5> 역시 TT 문화에서 기호학적 지위를 지니면서 관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상호텍스트적 지시를 첨가하고 비언어 기호의 의미 반복을 통해 내적 응집성도 높은 사례다. TT는 <오페라의 유령>, <노트르담 드 파리(Notre-Dame de Paris)> 등 ST에 없던 작품의 언어 및 비언어 기호를 첨가하고, 국내에서 공연된 적 없는 작품이기 때문에 TT 관객들에게는 기호적 지위를 온전히 전달하기 힘든 <선데이 인 더 파크 워드 조지(Sunday in the Park with George)>⁵⁾의 음악과 동작을 그대로 둠으로써 손실된 상호텍스트성을 바로 뒤에 <사운드 오브 뮤직> 속 가장 유명한 넘버인 ‘도레미 송’의 음악, 동작을 첨가해 보상했다(<썸씽로튼> 2차 프로그램북; 이수진 2019. 6. 26). 특히 ‘도레미

5) 영국의 앤드류 로이드 웨버와 자주 비견되는 뉴욕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거장 스티븐 손드하임(Stephen Joshua Sondheim)의 대표작으로 <스위니 토드(Sweeney Todd)>, <소야곡(A Little Night Music)>, <숲속으로(Into the Woods)> 등 그의 다른 작품들과 함께 브로드웨이 최고의 뮤지컬 작품들로 꼽힌다(강일중 2008. 5. 22; 파이낸셜뉴스 2010. 1. 11). 손드하임의 작품 가운데 국내에 공연된 것은 <컴퍼니(Company)>, <어쌔신(Assassins)>, <스위니 토드> 단 3편에 불과하다(지혜원 2019. 10. 30).

송'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애니(Annie)>와 아동 관객에 대한 친숙성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시도는 <예시 3>에서와 유사하게 음악이라는 기호를 통해 발생하는 의미적 연결망을 강화함으로써 수동적 상호텍스트성을 높일 수 있다.

<예시 5>

ST	TT
Nostradamus A true, blue, new	노스트라다무스 크리스틴 [<u><오페라의 유령></u> 의 음악, 가사, 동작]
Nostradamus & Ensemble Musical [간주: <Chicago>의 음악, 동작]	뮤지컬의 시대가 다가와 [<u><노트르담 드 파리></u> 의 음악, 가사] [간주: <시카고>의 음악, 동작]
...	...
Nostradamus & Ensemble ...	노스트라다무스와 앙상블 ...
[<Sunday in the Park with George>의 음악, 동작]	[사운드 오브 뮤직]의 음악, 동작]
It's a musical for us! [<u><Annie></u> 의 음악, 동작, 소품]	우릴 위한 뮤지컬 [<u><애니></u> 의 음악, 동작, 소품]

<예시 6> 역시 새로운 지시를 첨가해 상호텍스트성을 높인 경우이나 앞서 소개한 사례보다 과감하게 한국 창작 작품인 <서편제>의 대표 넘버 ‘살다보면’의 가사와 음악을 추가했다(진달래 2022. 1. 6). 특히 <오페라의 유령>, <노트르담 드 파리>, <라이온 킹> 등 앞선 예시에서 첨가된 작품들은 전 세계적 흥행작으로서 상호텍스트성의 확보를 어느 정도 보장하는 반면 <서편제>와 ‘살다보면’의 경우 유명하긴 하지만 뮤지컬을 많이 보는 관객에게 특히 상호텍스트

6) 2010년 초연 이후 2012년, 2014년, 2017년 공연되었고 올해 5번째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 작품으로 <썸씽로튼>의 이지나 연출가가 초연부터 꾸준히 연출을 맡아왔다. 이 작품은 2017년까지 주요 시상식에서 총 20회의 수상 기록을 달성했으며 특히 TT에 사용된 ‘살다보면’은 드라마, 서바이벌 음악 프로그램, 유튜브 커버 등으로 수없이 불리며 히트곡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김예림 2022. 5. 25).

트성이 높다는 점은 이러한 선택이 한국 뮤지컬 산업에서 영향력이 매우 높은 마니아 관객(홍정민 2020: 233)의 수요와 기대도 정교하게 충족시키려는 시도를 시사한다.

<예시 6>

ST	TT
Nostradamus Some musicals are very serious [<Rent>의 가사, 음악, 동작]	노스트라다무스 어떤 뮤지컬은 아주 진지하지 [<렌트>의 가사, 음악, 동작] 살다보면 [<서편제>의 가사, 음악] 많은 뮤지컬들이 있어

5. 시사점 및 결론

5.1 분석 결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는 뮤지컬 번역에서 상호텍스트성의 처리 양상과 그 영향을 멀티모달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상호텍스트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쌌로튼>을 대상으로 대사, 가사, 음악, 동작, 소품 등 다양한 언어와 비언어 기호 간 상호작용을 고찰해보았다. 분석 결과, ST의 상호텍스트적 지시가 TT 관객들에게 생소할 경우 번역자는 기호학적 지위를 유지하고 텍스트의 의도를 보존하기 위해 좀 더 친숙한 지시로 대체하거나 첨가했고 이는 TT의 상호텍스트성을 확보하거나 ST보다 강화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TT의 내적 응집성을 강화해 수동적 상호텍스트성을 확보하려는 시도도 나타났으며 이를 위해서는 언어 기호와 비언어 기호가 동시에 또는 개별적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뮤지컬 번역 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멀티모달적 관점에서 다양한 언어와 비언어 기호 간 상호작용을 각 기호 간 위계 없이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상호텍스트성 역시 언어뿐 아니라 다양한 기호와 이들 간 상호작용을 통해 전달될 수 있는 만큼 분석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하며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5.2 연구의 한계와 의의

물론, 상호텍스트성 강화, 보상 등의 효과를 측정하는 데 있어 주관성을 배제하지 못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신문기사, 리뷰 등에 제시된 실제 효과에 대한 평가를 좀 더 다양하게 첨가하거나 다른 분석자를 통한 코더 간 신뢰도 확보를 통해 분석 결과의 객관성을 보완함으로써 설득력과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여러 참여 주체의 코멘트와 같은 텍스트 외적 요소, 프로그램 북, 포스터, 홍보물 등 다양한 결텍스트를 통해서도 이러한 상호텍스트성과 관객 간 거리 조정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만 만큼 이들 요소에 대한 분석 역시 좀 더 충실히 첨가함으로써 뮤지컬 장르의 멀티모달적, 집단적, 대중예술적 특성을 좀 더 정교하게 반영하고자 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본 연구는 학술적, 산업적, 실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의를 지닌다.

우선 그동안 언어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거나 개별 비언어 기호에 대해서만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상호텍스트성 연구의 범위를 다양한 언어 및 비언어 기호와 그 상호작용으로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번역학 관점에서는 기존 뮤지컬 번역 연구에서 논의되지 않던 상호텍스트성을 고찰함으로써 연구 주제의 확대에 기여했다는 점이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흥행작이 비극이나 스릴러에 편중된 한국 뮤지컬 산업에서 작품 다변화를 견인할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최근 관심을 받고 있는 코미디 작품의 번역 양상을, 멀티모달적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코미디 뮤지컬 번역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뮤지컬 및 번역 업계, 관련 학계 모두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본 연구의 접근과 분석 결과는 상호텍스트성 연구, 뮤지컬 번역, 공연 예술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학제적, 융합적 연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참고문헌

- 고경호, 김용성 (2008) 「조각과 건축에 나타난 공간예술의 상호텍스트성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9(2): 3-13.
- 김도남 (2014) 『상호텍스트성과 텍스트 이해 교육』, 서울: 박이정.
- 김일경 (2018) 『상호텍스트성에 기초한 드라마 활동 구성 방법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선희 (2009) 『그림책 작가의 쓰기 및 유아 독자의 읽기 전략으로서의 상호텍스트성』,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택혜 (2022) 『적합성 이론에 기반한 패러디 번역 방법 연구: 중한 뉴스 제목 번역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KFL 대학원(외국어로서의한국어번역전공) 석사학위논문.
- 박미정 (2006) 「시사만화텍스트의 상호텍스트성에 대한 기호학적 접근-‘나대로 선생’ 한일번역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0(1): 57-75.
- 박미정 (2008) 「시사만화 그림번역의 서사성과 상호텍스트성-한일/한영번역의 번역전략 비교분석-」, 『통역과 번역』 10(1): 65-91.
- 선영화 (2016) 「그림책에서 애니메이션으로의 시각기호 번역 연구-*The Lost Thing* 각색의 스코프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8(1): 75-102
- 선영화 (2017) 「광고 기능적 관점에서 바라본 번역서 표지 변이 양상 연구」, 『번역학연구』 18(3): 119-148.
- 신나안, 신진원 (2017) 「영화포스터 번역에서의 상호관계적 기능 연구: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8(2): 97-126.
- 신나안 (2018) 「퀴어 영화포스터 번역에서 퀴어코드의 이성애화」, 『통역과 번역』 20(3): 24-48.
- <썸씽로튼> 한국 재연 1차 프로그램북 (2022). 엠씨어터.
- <썸씽로튼> 한국 재연 2차 프로그램북 (2022). 엠씨어터.
- 양용 (2010) 『공연예술 의상에 나타난 문화상호주의에 관한 연구: 국립극장 연극공연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예술경영지원센터 (2019. 2)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월간리포트 (2019년 1월)」,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경영지원센터 (2015) 「2015년 공연예술실태조사(2014년 기준)」,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체육관광부.
- 오정민, 김순영 (2019) 「슈퍼히어로 장르영화 자막번역의 상호텍스트성」, 『통역과 번역』 21(3): 101-124.
- 윤미선 (2022) 「음성 자막과 음성 해설의 멀티모달 결속성 연구: 한국 영화 「옥자」, 「미나리」, 「승리호」 분석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3(2): 127-155.
- 이상복 (2004) 「희곡의 상호텍스트성과 상호매체성」,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12: 99-125.
- 이상빈 (2015a) 「시각기호를 고려한 인쇄광고의 번역전략 고찰: 소규모 영한 광고자료를 기반으로」, 『번역학연구』 16(1): 65-91.
- 이상빈 (2015b) 「광고이론에 기초한 국내 외화포스터의 명시화 유형 분석」, 『번역학연구』 16(3): 173-196.
- 이상빈 (2017) 「광고와 젠더 번역: 수입자동차 인쇄광고의 남성타깃 번역전략」, 『통번역학연구』 21(2): 85-108.
- 이주리에 (2014) 「한·일 영화 포스터의 제목 및 비주얼 고찰: 멜로·드라마 장르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8(3): 153-175.
- 이지민, 정지윤 (2022) 「라이선스 뮤지컬 <레 미제라블>의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 번역 사례 연구: ‘내일로’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3(1): 101-133.
- 이현경 (2014) 『아동문학의 유머와 문화소 영한번역 전략 비교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첸양 (2018) 『상호텍스트성 관점에서 본 중국민족민간무용의 무대예술화 연구 - 양리핑의 무용극 <공작> 분석을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희경 (2011) 「번역서 표지의 변이 양상에 관한 기호학적 고찰」, 『통번역학연구』 15(1): 441-464.
- 홍승연 (2022) 『멀티모달 텍스트로서 라이선스 뮤지컬 번역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언』,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정민 (2017) 「뮤지컬 가사 번역에서 배우의 영향에 대한 고찰—<지킬 앤 하

- 이드(*Jekyll & Hyde*)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8(2): 255-291.
- 홍정민 (2020) 「국내외 뮤지컬 번역 연구 현황 및 향후 연구 방향」, 『번역학연구』 21(1): 215-251.
- 홍정민 (2021) 「패밀리 뮤지컬 번역과 아동 관객: <마틸다>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2(1): 313-350.
- Carpi, Beatrice (2020) 'A Multimodal Model of Analysis for the Translation of Songs from Stage Musicals', *Meta* 65(2): 420-439.
- Esslin, Martin (1987) *The Field of Drama*, London: Methuen.
- Hatim, Basil and Ian Mason (1990) *Discourse and the Translator*, London: Longman.
- Hong, Jungmin (2020) 'Taboos, Translation, and Intersemiotic Interaction in South Korea's Successful Musical Theaters', *The Journal of Popular Culture* 53(5): 1179-1201.
- Kirkpatrick, Wayne and Karey Kirkpatrick (2015. 6. 2) *Something Rotten!—Original Broadway Cast Soundtrack*, New York: Ghostlight.
- Kowzan, Tadeusz (1968) 'The Sign in the Theater' (Simon Pleasance, trans.), *Diogenes* 61: 52-80.
- Kristeva, Julia (1980) *Desire in Language: A Semiotic Approach to Literature and Ar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인터넷 자료>

- 강일중 (2008. 5. 22) 「손드하임의 뮤지컬 코미디 ‘컴퍼니’ 첫 선」, 『연합뉴스』, 2022년 7월 25일 검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2096757?sid=103>
- 김예림 (2022. 5. 25) 「뮤지컬 ‘서편제’ 마지막 시즌 8월 개막」, 『위드인뉴스』, 2022년 7월 25일 검색. <http://www.withinnews.co.kr/news/view.html?section=9&category=126&item=&no=27765>
- 김호경 (2018. 4. 1) 「앤드루 로이드 웨버, 성공적인 뮤지컬의 표본을 만든 대부: FOCUS」, 『객석』, 2022년 7월 25일 검색.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252870&memberNo=42430508>

- 박민지 (2020. 9. 21) 「이게 바로 “뮤우~지컬”... 뮤지컬 찬가 ‘썸씽로튼’[리뷰]», 『국민일보』, 2022년 7월 15일 검색.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030159&code=61171111&cp=nv>
- 박병성 (2019. 1) 「[SPECIAL] 2018년 뮤지컬계 결산», 『더뮤지컬, 제183호』, 2020년 7월 29일 검색. <https://www.themusical.co.kr/Magazine/Detail?num=3977>
- 박선희 (2018. 12. 18) 「뮤지컬 ‘마틸다’ 관객층 다변화로 시장확대 견인», 『동아일보』, 2020년 7월 29일 검색.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81218/93347035/1>
- 박정선 (2022. 2. 6) 「“대놓고 웃지도 못하는데”... 코로나 3년차 숨은 효자, 코미디 뮤지컬», 『데일리안』, 2022년 7월 2일 검색.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80004>
- 안시은 (2012. 1. 21) 「[프로필라인] <에비타>», 『더뮤지컬』, 2022년 7월 25일 검색. <https://www.themusical.co.kr/News/Detail?num=469>
- 양병훈 (2017. 9. 8) 「세계로 나가는 한국 뮤지컬», 『한국경제』, 2020년 1월 15일 검색.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17090890811>
- 양진영 (2019. 8. 17) 「[컬처톡] ‘맘마미아!’, 가장 관객친화적인 뮤지컬...입문자 위한 최선의 선택», 『뉴시스』, 2022년 7월 22일 검색. <https://www.newspim.com/news/view/20190816000661>
- 양진영 (2020. 8. 19) 「[컬처톡] 다채로운 레퍼런스와 초월번역의 힘, ‘썸씽로튼’», 『뉴시스』, 2022년 7월 16일 검색.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00819000850>
- 이수진 (2019. 6. 26) 「세상의 모든 뮤지컬과 셰익스피어에 바치는 무대...뮤지컬 ‘썸씽로튼’», 『올댓아트』, 2022년 7월 16일 검색. https://blog.naver.com/allthat_art/221571047403
- 이슬기 (2021. 11. 4) 「“인류 최초 뮤지컬이 탄생하다” 썸씽로튼, 내달 두 번째 시즌으로 컴백», 『한국정경신문』, 2022년 7월 15일 검색. <http://kpenews.com/View.aspx?No=2100865>
- 이재훈 (2019. 1. 17) 「‘라이언킹’ 흥행, 디즈니·가족 뮤지컬 터전 만들까», 『뉴시스』, 2020년 7월 30일 검색. <https://newsis.com/view/?id=NISX2019011>

- 7_0000532432&cID=10701&pI
- 이재훈 (2020. 8. 12) 「[리뷰]이게 바로 뮤지컬...‘썸씽로튼’」, 『뉴시스』, 2022년 7월 15일 검색.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812_0001127075&cID=10701&pID=10700
- 인터파크 티켓 예매 사이트. 2022년 7월5일 검색. <http://ticket.interpark.com/>
- 조유경 (2019. 1. 28) 「‘첸틀맨스 가이드’ 누적관객 6만 3천명...뮤지컬 코미디 새로운 지평」, 『스포츠동아』, 2022년 7월 2일 검색. <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190128/93885993/2>
- 중앙선데이 (2011. 11. 6) 「남태평양 왕과 나 등 술한 걸작 ... ‘미국 뮤지컬’ 시대 열다」, 2022년 7월 25일 검색. <https://www.joongang.co.kr/article/6596351>
- 지혜원 (2019. 10. 30) 「뮤지컬 ‘컴퍼니’ vs ‘선데이 인 더 파크 워드 조지」, 『객석』, 2022년 7월 25일 검색.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686714&memberNo=42430508&vType=VERTICAL>
- 진달래 (2022. 1. 6) 「“현정 뮤지컬 같아” 39년차 배우도 감동한 뮤지컬로 쓴 뮤지컬 찬사」, 『한국일보』, 2022년 7월 25일 검색.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10515090004947?did=NA>
- 천상욱 (2020. 8. 23) 「[ET-ENT 뮤지컬] ‘썸씽로튼’ 캐릭터의 매력을 배가하는, 제이민의 명쾌한 연기력과 시원시원한 가창력」, 『RPM9』, 2022년 7월 15일 검색. <http://www.rpm9.com/news/article.html?id=20200822090002>
- 파이낸셜뉴스 (2010. 1. 11) 「[브로드웨이통신] 손드하임에게 직접 듣는 손드하임 이야기」, 『파이낸셜뉴스』, 2022년 7월 25일 검색. <https://www.fnnews.com/news/201001111122318743?t=y>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 2022년 8월 3일 검색. <https://www.riss.kr/index.do>
- 허백윤 (2020. 12. 21) 「뮤지컬 ‘마리 퀴리’, ‘썸씽로튼’ 한국뮤지컬어워즈 최다 부문 노미네이트」, 『서울신문』, 2022년 7월 15일 검색.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221500122&wlog_tag3=naver
- Shapiro, Eben (2015. 6. 3) ‘The Tune That Samples Decades of Broadway Hits’, *The Wall Street Journal*. Available at https://www.wsj.com/articles/the-tune-that-samples-decades-of-broadway-hits-1433380790?reflink=share_mobile

webshare

<분석 자료>

연합뉴스 통통컬처 (2022. 1. 5) 「뮤지컬 ‘썸씽로튼’ 프레스콜 중 ‘A Musical’ (양요섭·정원영)」, 2022년 7월 10일 검색. <https://www.youtube.com/watch?v=xgPDVwOVpXUJ>

Something Rotten on Broadway (2017. 2. 24) ‘Musical References in “A Musical” from SOMETHING ROTTEN!’, Available at <https://www.youtube.com/c/SomethingRottenonBroadway?app=desktop>

[Abstract]

**A Multimodal Analysis of Intertextuality in Musical Theater
Translation: A Case Study on *Something Rotten!***

Jungmin Hong
(Dongguk University, Seoul)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intertextuality in musical theaters is translated and what impact it may have, by analyzing multimodal interactions between verbal and non-verbal signs. Based on Hatim and Mason (1990) and Carpi (2020), intertextual references delivered through lines, lyrics, music, movement and stage props were compared between the 2015 Broadway original and 2022 Korean productions of <*Something Rotten!*> whose key features are parodies and citation of references from Shakespeare's works and Broadway musicals. Analysis finds that unfamiliar intertextual references were replaced or new references were added via many verbal and non-verbal signs to retain semiotic status and intentionality which in turn can reinforce or ensure intertextuality in the TTs. Verbal or non-verbal signs were also changed to ensure coherence to contribute to passive intertextuality. The findings support the feasibility and significance of multimodal expansion of research on intertextuality and musical translation, and therefore this study's value as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Keywords: musical theater translation, multimodality, intertextuality, verbal signs, non-verbal signs

주제어: 뮤지컬 번역, 멀티모달리티, 상호텍스트성, 언어 기호, 비언어 기호

홍정민(<https://orcid.org/0000-0002-7909-4032>)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영어·통번역학전공 조교수

drew97@dongguk.edu

관심분야: 뮤지컬 번역, 뉴스 번역

논문투고: 2022년 8월 3일

1차심사 완료: 2022년 8월 26일

2차심사 완료: 2022년 9월 9일

게재 확정: 2022년 9월 16일